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개인, 가족, 학교, 인터넷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ersonal, familial, educational, Internet factors on adolescent's
self-esteem according to the age and gender

재단법인 서울여성 교육사업부
부 장 고 선 주*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교 수 이 은 희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나 영 주

건국대학교 차세대혁신기술연구원 의상학과
조교수 황 진 숙

협성대학교 교양학부
전임강사 박 숙 희

Leadership & educational program division, Seoul Women's Foundation

Program director : Koh, Seon-Ju

Dept. of consumer, child, and family studies, Inha University

Professor : Lee, Eun-H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

Associate professor : Na, Young-Joo

Division of Clothing & Textiles, NITRI Konku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wang, Jin-Sook

Dept. of Liberal Arts, Hyupsung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Park, Sook-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sonal, familial, educational, internet factor on adolescent's self-esteem according to the age and gender. The participants were 2,229 male and female students attending to middle and high school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elf-esteem score of middle school students was higher than the score of high school students.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females and males in several aspects. In order to explore and identify patterns of these difference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were conducted with separate groups (male middle school students,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male high school students,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ir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self esteem was affected by familial and educational factors. Male middle school students' self esteem was affected by familial factor, particularly by parental marital conflict. In the case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elf esteem was associated with economic variables (spending money and subjective economic level). Male high school students' self esteem was affected by the level of use of the internet.

▲주요어(Key Words) : 청소년(adolescent), 자아존중감(self esteem), 부모자녀간 의사소통(Parent-child communication), 친구관계(friendship), 인터넷 요인(Internet factor)

* 주 저 자 : 고선주 (E-mail : sjkoh@dreamwiz.com)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격한 사회변화 과정과 혼란 가운데서 삶의 방향을 결정 짓고 끊임없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이 중요하며, 이는 다양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청소년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발달 과업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심리적 부적응 및 비행에 쉽게 빠져든다고 하여(Edward, 1996)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주체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을 통하여 자아존중감 증진을 모색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요소들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강석기, 2003; 김애경, 2003; 김희화, 김경연, 1998; 이완정, 2003)은 크게 성별이나 신체적 성숙 등의 개인요인, 청소년이 성장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요인, 그리고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또래나 학교 요인들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어느 하나의 요인과 연관이 있기 보다는 청소년의 다양한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최근에 청소년 문화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 요인들이 간과되어 청소년이 동일한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청소년을 여학생과 남학생으로 분리한 이완정의 연구(2003)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해주는 변수와 여자 청소년의 설명변수가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분리가 타당한 분석임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하나의 변수로서 성별을 다루고 있을 뿐 여학생과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 자체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별 요인을 고려하여 이를 분리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성별 요인 외에도 청소년은 변화하는 시기이므로 이들의 연령변수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김희화와 김경연의 연구(1998)에서는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박성연 등의 연구(2001)는 고등학교 1학년이 연구대상이었다. 김애경의 연구(2003)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청소년 연구의 대상이며 강석기의 연구(2003)는 중학교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가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연구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부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중학교

와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포함하되 중학교와 고등학생으로 나누어서 각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문화를 논할 수 없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공간적 경계 허물기 및 사이버 공동체의 등장 등은 이 문화에 누구보다도 빨리 적응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문화가 청소년들에 미치는 피해 역시 인터넷의 일상화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확률이 높다는 연구(김혜원, 2001)는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요인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연구에서는 인터넷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별, 성별에 따라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요인, 인터넷 요인을 살펴본 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집단별로 파악함으로써 집단별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고 있는지 또한 집단별 영향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자아존중감 강화와 제공을 위한 기초적인 역할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중·고등학생별,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요인, 인터넷 요인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각 집단별(중·고등학생별, 성별)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요인, 인터넷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한 개인의 내면적 가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기본적인 영향이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를 가늠해주는 기분의 감정으로써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자각이라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핀 연구(강석기, 2003)에 의하면 자아존중에 대해 정의한 로젠버그는 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사정하는 것이라고 자아존중감을 정의하였으며, 매슬로우의 자아존중감을 강력한 인간의 욕구중의 하나임을 주장하였다. 반두라는 자아존중감이 개인들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미드는 자아가 태어날 때와 같은 상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달하게 되며 사회적 경험과 활동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자아를 이드, 에고, 수퍼 에고등 세가지로 분화시킨 프로이드는 자아와 사회를 조화로운 것이 아니라 갈등의 관계로 보았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종종 자아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에 비해 평가의 개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osenberg(1965, 이수용, 문영우, 2002서 재인용)는 이 두 개념을 구별하여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해 갖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아개념은 자신을 대상으로 볼 때, 자신에 대해 갖는 인지와 감정의 총체이므로 자아존중감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성숙한 인격으로 발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인생의 전 시기를 통해 형성되고 발달하는 것이지만 특히 다른 어느 시기보다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활발해지는 청소년기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가는 인간발달의 과도기로서 다양한 사회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여러 면에서 평가하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이러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가를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연구의 기반이 되는 과제인 셈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을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 - 개인, 가족, 학교, 인터넷 요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 요인, 가족 요인, 학교 요인, 인터넷 요인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순구, 박정순, 1990)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성연 외, 2001; 이완정, 2003)에서 모두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여아는 학교에서 지적 성취에 근거하여 평가받는데 비해 남아는 적극적 태도에 근거하여 평가받기 때문이라고 본다.

청소년들이 제도권 내외에서 받는 진학과 성적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성취는 결국 성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성적과 관련된 요

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청소년의 소비 행태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시장의 주체가 될만큼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박성연 외, 2001)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변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부모에게서 아직 독립하지 못한 시기임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경제적 수준은 가족의 경제적 수준 평가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측정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개인적인 용돈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요인을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부모와 관련된 요인들이다. 청소년 초기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욕구로 인해 부모와 갈등이 증가하고 세대차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가 소원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방식이 중요해진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부모로부터 감정이입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받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의 발전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김희화, 김경연, 1998).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권혜진, 윤종희, 1993)에서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고민이나 갈등 그리고 문제상황에 대해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대화로서 해결해 나갈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초기 청소년기에 불안정한 자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

반면, 부모갈등은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자녀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적응에 부모갈등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부간 불화와 이혼은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당사자들의 사적인 문제로 볼 수 없게 하고 있다. 부부갈등과 불화로 인해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적대감, 좌절, 무기력감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부모간의 갈등은 자녀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모에 의해 보고된 갈등보다는 부모갈등에 대한 자녀의 주관적인 지각과 해석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모간 갈등은 자녀의 인지적 해석과 평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이다(Grych, & Fincham, 1990).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간의 갈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가정다음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로서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학교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의 성원으로 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가치관을 습득하도록 돕고, 상급학교 진학준비 교육과 때로는 직업준비 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의 어떠한 요소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에서의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형태, 1989; 배재현, 최보가, 2001; 최정미, 김미란, 2003).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학교 친구간의 관계가 특히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그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추출하고 있다. 박아청과 이승국(1999)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 친구의 영향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학교 요인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항목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학계 뿐 아니라, 뉴스와 신문 등 매스미디어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사이버 공간은 초기 청소년들의 자아중심적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들의 과장된 자의식을 강화시키거나 확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사이버 공간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체험할 때 성숙한 자의식으로 변화될 수 있으나 익명성과 비대면성, 감각적 쾌락성 등에 탐닉되어 음란과 폭력, 비방 등을 일삼을 때 사이버 공간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의 대인관계가 익명성과 이중성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더 많을 수 있다(한상철, 2003).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을 어느 정도나 청소년이 인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요인들과 더불어 부작용인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인터넷 요인으로 나누어 각 요인이 중·고등학생별, 성별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구성 및 척도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1) 자아존중감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척도는 청소년용으로 제작된 Rosenberg(1979)의 척도를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묻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응답방식으로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이다. 신뢰도 계수는 $\alpha=.87$ 이었다.

2) 부모님과과의 의사소통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Barend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을 기초로 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개방성 정도를 측정하는 개방형 의사소통 척도와 의사교환에 있어 주저하고 주제선택에 조심을 하며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면을 파악하는데 이용되는 폐쇄형 의사소통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를 폐쇄형 척도는 역변환 하여 개방형 정도를 묻는 내용으로 합산하여 5점 리커트 척도, 총 20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개방성이 높은 것이다. 신뢰도계수는 $\alpha=.90$ 으로 나타났다.

3) 가족 자부심

가족자부심이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자부심으로서 이는 Olson, Laren,과 McCubbin(1982)이 개발한 Family Strength Scale 중에서 자부심에 해당하는 7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가족자부심 척도는 총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자부심이 높은 것이다. 신뢰도 계수는 $\alpha=.89$ 로 나타났다.

4) 부모간의 갈등

자녀가 지각한 부모간의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부모간 갈등척도는 Black과 Pedro-Carrol(1993)이 개발한 Interparental Conflict Scale(ICS) 척도 총 10문항 중에서 과거의 내용을 현재의 내용으로 7문항으로 통합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의 갈등이 높은 것이다. 신뢰도계수는 $\alpha=.85$ 로 나타났다.

5) 학교요인(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친밀도)

교사와의 관계는 이차선(1998)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총 6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교사와의 관계의 신뢰도계수는 0.80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 친밀도는 이차선(1998)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총 5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 친밀도가 높은 편이다. 친구관계 친밀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68$ 로 나타났다.

6)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

인터넷게임, 정보검색 및 자료수집, 대화방 채팅, 이메일/전자

우편 등11가지 영역에 이르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정도를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분야에 대한 인터넷 이용도가 높은 편이다.

7) 인터넷 부작용 인지

박성익 등의 연구(2000)에서 개발한 척도를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인터넷 부작용은 총 12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부작용에 대한 인지가 높은 것이다. 신뢰도 계수는 $\alpha = .87$ 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5대 도시(서울/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에 위치한 중학교 1학년 남녀 88명, 고등학교 2학년 남녀 78명 총 16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척도의 내용과 변별력 및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본조사는 전국 5대 도시 지역별로 4-6개 학교씩을 무작위 추출하고 각 학교마다 2-4반씩 무작위 선정하여 총 56개 학급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중학교 960명과 고등학교 1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중, 고등학교 각기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비율로 표집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960명, 대구 320명, 부산 320명, 광주 320명, 대전 320명으로서 총 2,2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여 2,229명의 설문지만을 최종 결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2229명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자면 다음의 표<3-1> 와 같다.

조사대상자 2229명 중에서 여학생은 전체 51.5%인 1149명이며 남학생이 44.7%인 1063명이다. 이들의 학년 분포를 보면 중학생이 940명으로 42.1%이며 고등학생이 1265명으로 56.8%로 고등학생이 약간 많은 편이다. 학생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성적은 상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14.5%인 323명, 중상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0%인 846명, 중하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2.8%인 286명, 하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2.8%인 286명으로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분포는 고르게 나타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9.9%인 221명이었다. 이중 이유를 밝힌 220명만을 다시 분석해보면 부모님 이혼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30.5%인 67명, 부모님 별거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11.4%인 25명, 부모님 사망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31.4%인 69명, 부모님이 병환이신 경우가 1명, 그리고 부모님 직업으로 인해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26.4%인 58명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을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영업으로 전체의 22.9%인 510명이었다. 다음으로는 사무직과 기술직이 유사한 16.1%와 14.7%인 358명과 328명이며 다음으로는 공무원이 11.4%

인 253명이며 전문직이 7.9%인 175명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단순노무직이거나 무직인 경우도 3.4%인 75명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과반수 정도가 고졸로 48.0%인 1071명이었다. 다음으로는 대졸이 29.6%인 659명이며 중졸이하가 8.1%인 180명, 대학원졸 이상이 6.75%인 149명이었다. 어머니의 학력 역시 가장 많은 경우가 고졸로 56.6%인 1261명이며 다음은 대졸이 20.1%인 447명, 중졸이하가 12.1%인 269명 순이다.

<표 3-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성별	여학생	1149(51.5)	비동거 이유	부모님이혼	67(30.5)		
	남학생	1063(44.7)		부모님별거	25(11.4)		
	결측값	17(0.8)		부모님사망	69(31.4)		
	소계	2229(100.0)		부모님병환	1(0.5)		
부모님직업				58(26.4)			
소계				220(100.0)			
학년	중학교 1	343(15.4)	아버지 직업	전문직	175(7.9)		
	중학교 2	311(14.0)		자영업	510(22.9)		
	중학교 3	286(12.8)		기술직	328(14.7)		
	고등학교 1	672(30.1)		사무직	358(16.1)		
	고등학교 2	593(26.6)		판매서비스직	151(6.8)		
	결측값	24(1.1)		공무원	253(11.4)		
	소계	2229(100.0)		농림수산업	41(1.8)		
단순노무직				46(2.1)			
무직				29(1.3)			
주관적 성적평가	상위권	323(14.5)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180(8.1)	
	중상위권	846(38.0)			고졸이하	1071(48.0)	
	중하위권	737(33.1)			전문대졸	85(3.8)	
	하위권	286(12.8)			대졸	659(29.6)	
	결측값	27(1.7)	대학원졸이상		149(6.7)		
	소계	2229(100.0)	결측값		85(3.8)		
			소계		2229(100.0)		
			소계		2229(100.0)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거	1966(88.2)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269(12.1)
		비동거	221(9.9)			고졸이하	1261(56.6)
결측값		42(1.9)	전문대졸	62(2.8)			
소계		2229(100.0)	대졸	447(20.1)			
			대학원졸이상	56(2.5)			
	결측값		134(6.0)				
소계	2229(100.0)	소계	2229(100.0)				

3. 자료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수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중고등학생별,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인터넷 요인의 변수들에게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전반적인 변수들

의 평균, 표준편차, 분산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각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를 독립적인 t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의 연구문제는 여학생과 남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인터넷 요인별로 위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전반적인 설명력의 증가분을 R² 증가량을 통해서 측정하였으며 각 투입된 단계별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spss/win 10.1을 통해 분석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중고생 여부와 성별에 따른 개인요인(성적, 용돈), 가족요인(가족자부심, 부모갈등,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족의 경제수준) 학교 요인(선생님과의 관계, 친구관계 친밀도) 인터넷 요인(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부작용,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

연구문제 1인 청소년의 발달수준과 성별에 따라 개인요인(성적, 용돈), 가족요인(가족자부심, 부모갈등,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족의 경제적 지위) 학교 요인(선생님과의 관계, 친구관계 친밀도) 인터넷 요인(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부작용,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와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각 변수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동일한 분석을 성별에 따른 차이에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인터넷 요인은 중·고생 여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의 <표4-1>와 같다.

<표4-1>의 결과를 보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척도 범위 10~50중에서 32.03이며 고등학생은 31.08점으로 나타나 중·고등학생 모두 중간 정도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약간 더 높다 (t=3.05, p<.01). 이처럼 연령이 높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것은 선행연구(이진화, 전경숙, 1995; Wigfield et al,1991)와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학급석차/학년인원으로 살펴본 청소년의 성적을 보면 중학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조사대상이 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급인원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학생들이 평가한 자신의 등수는 중학생 17등 고등학생의 경우 18등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학급인원수는 중학생 44명, 고등학생 37명으로 차이가 있어 학급인원수로 나눈 자신의 등수는 중학생의 경우에 실제로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족자부심 척도(7~35)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중간값보다 약간 상회하는 점수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가족에 대해 지니는 자

부심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자부심은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좀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t=8.28, p<.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간의 갈등(7~35)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경우에 부모간의 갈등이 더 많은 편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t=-6.99,p<.001).

<표4-1> 청소년의 중·고생 여부에 따른 차이

변수	구간	N	평균(표준편차)		t	
			평균	문항수		
자아존중감	중학생	919	32.03(7.38)	3.20	3.05**	
			31.08(7.09)			
	고등학생	1251	3.10			
개인적 요인	석차율	중학생	779	.40(.27)	-4.47***	
		고등학생	1135	.46(.27)		
	용돈(천원)	중학생	867	29.73(24.48)		-9.29***
		고등학생	1150	43.99(43.74)		
가족요인	가족자부심	중학생	934	25.55(5.53)	8.28***	
		고등학생	1257	3.65		
	부모갈등	중학생	923	14.71(5.15)	-6.99***	
		고등학생	1243	2.10		
	부모와의 의사소통	중학생	863	64.89(13.10)	4.71***	
		고등학생	1216	3.25		
	가족의 경제수준	중학생	917	3.10(0.94)	-10.52***	
		고등학생	1242	3.11		
	학교요인	선생님과의 관계	중학생	924	18.91(4.91)	6.20***
			고등학생	1252	3.15	
친구관계 친밀도		중학생	935	17.64(4.49)	2.26*	
		고등학생	1257	2.94		
인터넷 요인	인터넷 이용시간(분)	중학생	915	138.22(114.59)	-.50	
		고등학생	1232	140.79(118.49)		
	인터넷 부작용	중학생	921	28.49(9.30)	-4.14***	
		고등학생	1247	2.37		
	서비스 이용도	중학생	916	30.12(8.85)	-3.41**	
		고등학생	1255	2.51		

*p<.05, **p<.01, ***p<.001

청소년과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20~100)은 중간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 역시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더 개방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t=4.71, p<.001$). 가족의 경제적 지위를 '상의 상'부터 '하의 하'까지 묻는 질문에서는 대부분 중의 상과 중의 하라고 응답하였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가족의 경제적 지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t=-10.52, p<.001$). 가족 요인은 전반적으로 볼 때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소년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부모 즉,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정체성 탐구가 높아지는 청소년기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더 문제를 느끼고 부모간의 갈등을 더 인지하고 이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과의 관계와 친구관계 친밀도로 평가된 학교요인은 선생님과의 관계와 친구관계 친밀도 모두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경향을 보여주어 대체로 선생님과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친구관계가 친밀한 편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중학생이나 친구관계 친밀도 모두 중학생의 경우에 고등학생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선생님과의 관계 $t=6.20, p<.001$; 친구관계 친밀도 $t=2.26, p<.05$). 앞서 가족요인이 고등학생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임을 고려한다면 가족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른 환경 요인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데 적어도 그 대상이 학교의 선생님이거나 친구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터넷 요인으로 이용시간과 인터넷 부작용,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를 고려할 때 이용시간의 경우 중학생이 일일 평균 138분 정도이고 고등학생이 평균 141분 정도로 이용시간 자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는 데에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많은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t=-4.14, p<.001$)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에 있어서도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활발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41, p<.01$).

이런 전반적인 평균의 차이만을 고려해서 선부른 해석을 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여기의 전반적인 차이를 고려해본다면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청소년이 학교 내의 관계로 흡수되지 못하고 인터넷 요소에 대한 몰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특성들은 적어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음의 <표4-2>에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평균을 비교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자아존중감(10~50) 평균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모두 중간정도의 값으로 나타났다. 석차율의 경우 남학생은 전체 0.45에 자신의 성적이 위치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 0.42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더 높은 성적을

보고하였다($t=2.17, P<.05$).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의 학급인원수와 학급에서의 등수를 비교해보면, 남학생은 학급인원 평균 42명인 반면 여학생은 39명으로 남학생의 경우에 좀 더 학급인원 구성이 많은 편이며 등수는 남학생 19등 여학생 16등으로 여학생의 평균 등수가 높은 편이었다. 또한 다른 문항에 비해서 석차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청소년이 많은 편인데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110명, 남학생의 경우 89명으로 여학생의 경우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다소 높은 편이었다. 응답하지 않은 청소년의 성적이 반드시 낮은 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응답에 비해 무응답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낮은 학생들이 응답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런 점은 여학생의 경우에 더 민감한 사안이었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추측된다.

반면 용돈의 경우 여학생이 평균 3만6천 원 정도인데 비하여 남학생의 용돈을 한달 평균 4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용돈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요인은 가족자부심, 부모갈등,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족의 경제수준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자부심(7~35)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24점 정도로 어느 정도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었다($t=2.21, p<.05$). 부모간의 갈등인지(7~35)는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20~100)은 중간정도의 개방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여학생의 경우에 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편으로 나타났다($t=-2.01, p<.05$).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중간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학교요인은 선생님과의 관계는 남학생이($t=4.13, p<.001$) 그리고 친구관계 친밀도는 여학생의 경우에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t=-4.13, p<.001$). 인터넷 요인을 보면 먼저 이용시간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시간 자체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의 부작용을 인지하는 측면에서는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보다 좀 더 높은 인지를 보였으며($t=7.20, p<.001$),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 면에서는 여학생이 오히려 남학생보다 더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11, p<.05$).

이상의 <표4-2>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자면,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인터넷 이용시간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다른 요인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분석에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각 요인별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구간	N	평균(표준편차)		t	
			평균	분향수		
자아존중감	여학생	1136	31.15(7.23)	3.12	.31	
	남학생	1041	31.83(7.16)	3.18		
개인요인	석차율	여학생	.42(.27)		2.17*	
		남학생	.45(.28)			
	용돈(천원)	여학생	1038	35.74(34.50)		2.59*
		남학생	985	40.05(39.99)		
가족요인	가족 자부심	여학생	1143	24.39(5.80)	2.21*	
			3.48			
		남학생	1055	24.43(5.40)		
			3.49			
	부모갈등	여학생	1131	15.58(5.54)	.55	
			2.23			
		남학생	1042	15.71(5.46)		
			2.24			
	부모와의 의사소통	여학생	1084	63.84(13.66)	-2.01*	
			3.19			
		남학생	1002	62.70(12.35)		
			3.14			
가족의 경제수준	여학생	1120	3.35(.90)	-.37		
	남학생	1045	3.33(.93)			
학교요인	선생님과의 관계	여학생	1137	17.79(4.78)	4.13***	
			2.97			
		남학생	1046	18.62(4.60)		
			3.10			
	친구관계 친밀도	여학생	1146	15.68(2.73)	-4.13***	
		남학생	1053	15.18(2.84)		
인터넷요인	인터넷 이용시간(분)	여학생	1125	138.05(108.26)	.654	
		남학생	1027	141.35(125.43)		
	인터넷 부작용	여학생	1132	28.09(8.72)	7.20***	
			2.34			
		남학생	1043	30.86(9.24)		
			2.57			
	서비스 이용도	여학생	1130	30.59(5.61)	-3.11*	
			2.78			
남학생		1048	29.79(6.49)			
		2.71				

*p<.05, ***p<.001

2.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요인, 인터넷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

중학교 여학생의 개인요인(용돈, 성적) 가족요인(부모간의 갈

등, 경제수준,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족자부심), 학교요인(선생님과의 관계, 친구관계 친밀도), 인터넷 요인(인터넷 서비스 이용도, 인터넷 부작용, 인터넷 이용시간)의 4요인이 중학교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각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위계적인 회귀분석을 통해서 각 요인 투입시의 R² 증가량을 통해 요인의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총 4개의 모델이 사용되었다. 모델 1은 개인요인만이 독립변수인 경우이며 모델2는 개인요인과 가족요인이 독립변수로 사용된 경우, 모델3은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이 독립변수로 투입된 모델이며 모델 4는 인터넷 요인까지 포함된 4요인이 전부 독립변수로 투입된 모델이다.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 개인요인(용돈과 성적)을 독립변수로 한 모델 1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6%를 두개의 독립변수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 중에서 성적이 중학교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요인에서 가족요인이 추가된 모델 2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은 크게 증가하여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독립변수 중에서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지니고 있는 자부심, 부모와의 의사소통, 성적,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수준 순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이외에 학교 요인이 추가된 모델 3에서는 설명력이 36%로 증가하였으며 독립변수 중에는 가족자부심, 친구관계 친밀도, 선생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생의 성적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인터넷 요인이 추가된 모델 4를 보면, 중학교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38%로 증가하여 연구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수군 중 개인요인에서는 학생의 성적이, 가족요인에서는 가족자부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학교 요인은 선생님과의 관계 및 친구관계 친밀도 모두가 그리고 인터넷 요인 중에는 인터넷 이용시간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의 Beta 값을 비교해보면, 영향력이 큰 순서는 가족자부심, 친구관계 친밀도, 선생님과의 관계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성적, 인터넷 이용시간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자신의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친구관계가 친밀수록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성적이 상위권이고 인터넷 이용시간이 짧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요인 및 인터넷 요인은 모두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요인과 학교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3> 중학교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beta	t
모델 1	상수	34.43	.91		37.93
	개인요인				
	용돈	1.83E-03	.02	.00	.08
	성적	-6.88	1.51	.25	-4.57***
$R^2 = .062$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beta	t
모델 2	상수	18.76	3.53	5.31	
	개인요인				
	용돈	2.44E-02	.02	.06	1.20
	성적	-3.60	1.35	-.13	-2.66**
가족요인	가족자부심	.43	.09	.35	4.83***
	부모간의 갈등	1.40E-02	.08	.01	.18
	부모와의 의사소통	8.14E-02	.03	.16	2.44*
	주관적 경제수준	-.88	.40	-.11	-2.21*
$R^2 = .30 (\Delta R^2 = .24)$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beta	t
모델 3	상수	11.17	3.71		3.01
	개인요인				
	용돈	3.06E-02	.02	.06	1.20
	성적	-3.6	1.36	-.13	-2.66**
가족요인	가족자부심	.30	.09	.35	3.35**
	부모간의 갈등	-2.5E-03	.08	-.00	-.03
	부모와의 의사소통	7.17E-02	.03	.14	2.21*
	주관적 경제수준	-.75	.39	-.10	-1.96
학교요인	선생님과의 관계	.23	.07	.17	3.26**
	친구관계 친밀도	.44	.12	.18	3.64***
$R^2 = .36 (\Delta R^2 = .06)$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beta	t
모델 4	상수	15.45	4.03		3.84
	개인요인				
	용돈	3.53E-02	.02	.09	1.79
	성적	-3.17	1.34	-.12	-2.36*
가족요인	가족자부심	.30	.09	.23	3.19**
	부모간의 갈등	4.90E-03	.08	.00	.06
	부모와의 의사소통	7.07E-02	.03	.14	2.19*
	주관적 경제수준	-.63	.39	-.08	-1.63
학교요인	선생님과의 관계	.20	.07	.14	2.82**
	친구관계 친밀도	.44	.13	.18	3.41**
인터넷 요인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	-4.0E-02	.06	-.03	-.70
	인터넷 중독	-7.1E-02	.04	-.09	-1.86
	인터넷 이용시간	-6.7E-03	.00	-.10	-1.97*
$R^2 = .38 (\Delta R^2 = .02)$					

*p<.05, **p<.01, ***p<.001

2)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요인이 독립변수인 모델1, 가족요인이 추가된 모델2, 학교 요인이 더해진 모델3, 인터넷 요인까지 추가된 모델4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표4-4>에 제시되어 있다.

<표4-4> 중학교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beta	t
모델 1	상수	34.33	.86		38.71
	개인요인				
	용돈	2.37E-02	.01	.11	1.87
	성적	-3.55	1.54	-.14	-2.31*
$R^2 = .03$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beta	t
모델 2	상수	13.31	3.87		3.44
	개인요인				
	용돈	1.31E-02	.01	.06	1.07
	성적	-2.36	1.44	-.09	-1.64
가족요인	가족자부심	.47	.10	.34	4.52***
	부모간의 갈등	.21	.09	.15	2.40*
	부모와의 의사소통	8.76E-02	.04	.16	2.20*
	주관적 경제수준	-2.1E-02	.44	-.00	-.05
$R^2 = .18 (\Delta R^2 = .15)$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beta	t
모델 3	상수	8.28	4.15		1.99
	개인요인				
	용돈	9.35E-03	.01	.04	.77
	성적	-2.12	1.42	-.08	-1.49
가족요인	가족자부심	.41	.11	.30	3.94***
	부모간의 갈등	.20	.09	.15	2.28*
	부모와의 의사소통	6.48E-02	.04	.12	1.62
	주관적 경제수준	2.94E-02	.43	.00	.07
학교요인	선생님과의 관계	.17	.08	.12	2.07*
	친구관계 친밀도	.31	.15	.12	2.07*
$R^2 = .21 (\Delta R^2 = .03)$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beta	t
모델 4	상수	9.00	4.43		2.03
	개인요인				
	용돈	7.01E-03	.01	.03	.57
	성적	-1.49	1.45	-.06	-1.03
가족요인	가족자부심	.41	.10	.30	3.96***
	부모간의 갈등	.22	.09	.16	2.53*
	부모와의 의사소통	5.73E-02	.04	.10	1.43
	주관적 경제수준	6.15E-02	.43	.01	.14
학교요인	선생님과의 관계	.16	.08	.11	1.88
	친구관계 친밀도	.26	.15	.10	1.75
인터넷 요인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	-9.2E-02	.05	-.12	-2.05*
	인터넷 중독	.11	.06	.11	1.92
	인터넷 이용시간	-3.0E-03	.00	-.06	-.96
$R^2 = .23 (\Delta R^2 = .02)$					

*p<.05, **p<.01, ***p<.001

우선 개인요인만을 투입한 모델1의 경우 성적과 용돈변수는 중학교 남학생 자아존중감의 3%를 설명하며 성적만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족요인이 추가되는 경우 중학교 남학생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에서 15%가 증가된 18%로 R^2 가 나타나며 가족 자부심과 부모간의 갈등,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요인까지 추가된 모델3의 경우 모델2에서 3%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자아존중감의 21%를 설명하였다. 또한 가족자부심과 부모간의

갈등, 선생님과과의 관계와 친구관계 친밀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요인까지 투입된 모델4의 경우 중학교 남학생 자아존중감의 총 2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자부심과 부모와의 갈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가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밝혀졌다. 즉, 자신의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간의 갈등을 인지할수록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작을수록 중학교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앞서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중학생의 경우 남녀 모두에게 공통되게 나타난 점은 가족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된 점이다. 특히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간의 갈등 인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부모간의 갈등 인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남학생의 경우 부모간의 갈등인지척도는 7점에서 35점까지의 범위로 평균 15점으로 나타났으며 사분위수는 25%가 11점, 50% 14점, 75%가 18점으로 전체적으로 부모간의 갈등인지가 약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부모간의 갈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는 부모간의 갈등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이를 인지하는 지각력을 지닐 경우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해석을 추후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학생에서 의미가 있던 학교 요인이 남학생 모델에서는 전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좀 더 관계적인 측면에 예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요인에 있어서도 여학생의 경우는 인터넷 이용시간이 짧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시간보다는 서비스 이용도 자체가 적은 편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중학교 여학생과 남학생이 위계적 회귀 분석 모델을 비교한 결과 가족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전체 모델은 여학생의 경우에 더 설명력이 높은 편이며 세부적인 면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요인, 인터넷 요인을 차례로 추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가 위의 <표4-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개인요인인 성적과 용돈만을 독립변수로 한 모델1의 결과는 자아존중감의 7%를 설명하고 있으며 성적 요인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자부심, 부모간의 갈등, 부모와의 의사소통, 주관적 경제수준으로 살핀 가족요인이 추가된 모델2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26%를 설명하며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족자부심 순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성적과 용돈, 주관적 경

제수준이 동일한 정도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시 선생님과과의 관계와 친구관계 친밀도로 살핀 학교요인이 추가된 모델3의 경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9%로 증가하였으며 모델2의 변수 이외에 학교요인인 2개의 변수 모두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4-5> 고등학교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beta	t
	모델1	개인요인	상수	32.87	.75	
성적			-6.30	1.27	-.23	-4.95***
용돈			2.46E-02	.01	.12	2.67**
R² .07						
모델2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beta	t
	개인요인	상수	22.13	3.04		7.29
		성적	-3.64	1.17	-.13	-3.12**
		용돈	2.51E-02	.01	.13	3.01**
	가족요인	가족자부심	.26	.08	.20	3.34**
		부모간의 갈등	-2.7E-02	.07	-.02	-.41
		부모와의 의사소통	.12	.03	.23	4.27***
		주관적 경제수준	-1.14	.37	-.13	-3.06**
R² .26 (ΔR² .19)						
모델3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beta	t
	개인요인	상수	13.47	3.58		3.77***
		성적	-2.81	1.16	-.10	-2.42*
		용돈	2.57	.01	.13	3.14**
	가족요인	가족자부심	.21	.08	.16	2.64**
		부모간의 갈등	-3.2E-02	.06	-.03	-.50
		부모와의 의사소통	.11	.03	.21	3.85***
		주관적 경제수준	-1.01	.37	-.12	-2.75**
	학교요인	선생님과의 관계	.25	.07	.15	3.45**
		친구관계 친밀도	.37	.13	.12	2.90**
R² .29 (ΔR² .03)						
모델4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beta	t
	개인요인	상수	14.36	3.97		3.62
		성적	-2.61	1.16	-.10	-2.25*
		용돈	2.48E-02	.01	.12	3.03**
	가족요인	가족자부심	.20	.08	.15	2.48*
		부모간의 갈등	-2.6E-02	.07	-.02	-.41
		부모와의 의사소통	.111	.03	.21	3.86***
		주관적 경제수준	-.96	.37	-.11	-2.62**
	학교요인	선생님과의 관계	.23	.07	.14	3.18**
		친구관계 친밀도	.35	.13	.12	2.76**
인터넷 요인	인터넷서비스 이용도	6.55E-02	.06	.05	1.11	
	인터넷 중독	-4.7E-02	.04	-.05	-1.24	
	인터넷 이용시간	-8.3E-03	.00	-.09	-2.25*	
R² .30 (ΔR² .01)						

*p<.05, **p<.01, ***p<.001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족자부심, 선생님과과의 관계, 용돈, 친구관계, 친밀도와 주관적 경제수준, 성적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요인이 추가된 모델4의 경우 모델3에 비해 총 설명력은 1% 만이 증가하였으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중에서 인터넷 요인 중 인터넷 이용시간이 추가되었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역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은 가족자부심, 선생님과 관계, 친구관계 친밀도와 용돈이 같은 수준이며 주관적 경제수준과 성적이 다음 순이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클수록 그리고 선생님과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친구관계 친밀도가 높으며 용돈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이며 주관적 경제수준과 성적이 상위권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가족요인과 개인요인, 학교 요인이 모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인터넷 요인 중에서는 이용시간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요인, 인터넷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4-6>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따르면 개인요인만 독립변수로 투입된 모델1의 경우 고등학교 남학생 자아존중감의 3%를 설명하였으며 개인의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여기에 가족요인까지 투입된 모델2의 경우 가족자부심, 부모와의 의사소통, 성적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의 18%를 설명하였다. 다시 학교 요인이 추가된 모델3의 경우 가족자부심, 부모와의 의사소통, 선생님과 관계, 성적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종속변수의 2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요인까지 추가된 모델4의 경우 종속변수 변량의 총 26%를 모델4가 설명하고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가족자부심, 부모간의 갈등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선생님과 관계 그리고 성적순이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여학생과는 달리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의 영향력이 가장 커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할수록 고등학교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족자부심으로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부모간의 갈등을 인지할수록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다음으로 선생님과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높았다.

여학생과 비교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여학생의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가족요인이 전반적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개인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는 개인요인 중에서 성적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

년이 인지한 가족의 주관적 경제수준과 자신의 용돈 모두 경제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는 이 두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한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남녀와 비교해 본다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에게서 경제력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렇다면 분석 대상이 된 4개의 집단 중에서 오직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요인인 용돈과 주관적 경제수준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 계속 탐구되어야 할 요인일 것이다.

<표 4-6> 고등학교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beta	t	
	모델1	개인요인	상수	33.14	.71		46.63
용돈			8.06E-03	.01	.05	1.02	
성적			-4.58	1.16	-.18	-3.94***	
$R^2 = .03$							
모델2	개인요인	상수	18.94	2.85		6.65	
		용돈	4.96E-03	.01	.03	.66	
		성적	-2.97	1.10	-.12	-2.70**	
	가족요인	가족자부심	.30	.07	.24	4.24***	
		부모간의 갈등	2.10E-02	.06	.02	.35	
		부모와의 의사소통	.12	.03	.21	4.05***	
		주관적 경제수준	-.36	.37	-.04	-.98	
$R^2 = .18$ ($\Delta R^2 = .15$)							
모델3	개인요인	상수	12.99	3.11		4.19	
		용돈	3.06E-02	4.88E-03	.01	.03	.66
		성적	-2.35	1.09	-.09	-2.16*	
	가족요인	가족자부심	.26	.07	.21	3.74***	
		부모간의 갈등	1.47E-02	.06	.01	.25	
		부모와의 의사소통	.10	.03	.17	3.38**	
		주관적 경제수준	-.45	.36	-.05	-1.24	
	학교요인	선생님과 관계	.25	.07	.16	3.71***	
친구관계 친밀도		.25	.11	.09	2.27		
$R^2 = .22$ ($\Delta R^2 = .04$)							
모델4	개인요인	상수	17.60	3.40		5.17	
		용돈	4.24E-03	.01	.02	.59	
		성적	-2.17	1.07	-.09	-2.03*	
	가족요인	가족자부심	.26	.07	.21	3.81***	
		부모간의 갈등	4.39E-02	.03	.16	3.26**	
		부모와의 의사소통	9.48E-02	.03	.16	3.26**	
		주관적 경제수준	-.43	.35	-.05	-1.22	
	학교요인	선생님과 관계	.20	.07	.13	3.13**	
		친구관계 친밀도	.17	.11	.07	1.55	
	인터넷 요인	인터넷서비스 이용도	-.17	.03	-.22	-5.05***	
인터넷 중독		7.91E-02	.05	.07	1.58		
인터넷 이용시간		5.52E-04	.00	.01	.245		
$R^2 = .26$ ($\Delta R^2 = .04$)							

*p<.05, **p<.01, ***p<.001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요인으로 측정된 2변수 모두 다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선생님과 관계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는 경제적인 요인인 용돈과 주관적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치는가 다른 점이지만, 남학생의 경우는 좀 더 많은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즉,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이나 중학생의 경우엔 성적의 의미 있는 독립변수가 아니었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도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선생님과 관계 역시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는 의미가 있었으나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볼 때 남학생의 경우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이 많은 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선생님과 관계, 성적 등이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경우 선생님과 우호적인 관계나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 청소년과의 관계가 반영된 변수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성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서로 다른 영향요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추후 이러한 차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됨으로써 이런 차이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지형을 그려내고 있는가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2,229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중·고등학생, 남녀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요인, 인터넷 요인으로 나누어 각 요인들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영향요인이 발달수준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청소년기의 주 과제라면 자아존중감은 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통로가 될 것이며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라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보다 높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가족요인에 대한 평가가 중학생보다 부정적인 편이며 학교 요인 역시 중학생이 더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요인의 경우는 이용시간은 차이가 없으나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인지하는 것과 서

비스 이용은 고등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소년의 발달수준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결과라고 보인다. 부모, 가족과 학교제도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정체성 탐구가 높아지는 청소년기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더 문제를 느끼고 부모간의 갈등을 더 인지하고 이를 평가하며 선생님과 관계 역시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친구관계 역시 친밀도는 약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이용시간 자체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차이가 없지만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지는 동시에 부작용을 지각할 수 있는 인지능력 역시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발달수준의 차이와 청소년기의 정체성 추구하고 연관된 부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요인으로 구성된 변수들의 전체적인 경향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차가 나타난다. 남학생의 경우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선생님과 관계가 더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하였으며 여학생은 이에 비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이고 친구관계 친밀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인터넷 이용시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작용은 남학생이 더 인지하는 편이며 서비스 이용 자체는 여학생이 더 이용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발달수준별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자아존중감에 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 가족요인과 학교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친구관계가 친밀할수록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선생님과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성적이 상위권이고 인터넷 이용시간이 짧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둘째,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가족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아닌 부모간의 갈등인지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중요하게 지적된 인터넷 이용시간보다는 서비스 이용도 자체가 영향을 미쳐 이용이 작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이다.

셋째,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선생님과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친구관계 친밀도가 높으며 용돈이 많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상위라고 지각하고 성적이 상위권이며 인터넷 이용시간이 짧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이었다.

넷째,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작고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부모간의 갈등을 인지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선생님과 관계가 우호적이고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와 같이 중·고등학생별 성별로 분석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자면 다음의 특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체로 같은 요인을 고려하였지만 전체적인 분석결과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에 상관없이 여학생의 경우 대체로 설명력이 30% 이상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명력이 가장 낮은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가족요인과 인터넷 요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고등학생별 성별에 따른 연구를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각 집단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내는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의 중심과제였던 인터넷 요인의 탐구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에 상관없이 인터넷 이용시간이 짧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가 낮은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경우 다른 어떤 독립변수보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점은 이들 집단의 고유한 특성으로 볼 수 있었다. 다른 집단에서 주로 가족관련 변수들이 독립변수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등장한 반면,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문화와 특성이 청소년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면 실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은 바로 고등학교 남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개인요인 중에서 성적이 대체로 대부분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오직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성적의 영향력이 무의미하게 밝혀졌다. 또한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학교 요인의 영향력이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집단이었다. 여학생이나 고등학교 남학생에 비하여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전체적인 중·다회귀식의 설명력이 낮을 뿐 아니라 개인요인이나 학교요인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들 집단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여학생의 경우 대체로 학교 요인의 영향력이 남학생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과 상관없이 선생님과의 관계와 친구관계 친밀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오직 고등학생의 경우에만 선생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 밝혀진 독특한 결과로서,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에만 경제와 관련된 요인인 용돈과 주관적 경제수준의 영향력이 등장한 점이다. 이는 다른 어떤 집단과도 차이나는 결과로서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만 유일하게 경제 관련 변수들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앞으로 계속 탐구되어야 할 과제를 준 것으로 보인다.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물질주의 영향과 청소년의 명품선호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보이지만 앞으로 여고생의 경제 관련 변수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집단간 차이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증진 방안을 구상할 때 고려할 점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 증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성인으로 성장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지니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볼 때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중학생보다 더 낮다는 점은 실제로 고등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 회복에 대한 노력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 내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자부심, 혹은 부모와의 갈등을 인지하는 것,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등은 집단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전 집단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속한 가족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 등이 주로 청소년 문화 콘텐츠 양산이나 체육 혹은 제도권 내의 교육이라는 관점뿐 아니라 좀 더 가족요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최근에 정부기구를 개편하여 청소년과 가족영역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에 대한 요구가 강한 시기인 청소년기라 할지라도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기본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역시 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해온 가족인 것이 증명된 셈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소년·녀에 대한 접근에서 보다 더 가족적인 측면이 배려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발달수준과 성별에 따른 다른 영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므로 경제관련 내용을 함께 접목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올바른 패러다임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선생님과의 관계가 여학생의 경우는 친구관계 친밀도가 중요하게 나타나므로 자아존중감 증진 과정에서 접근하는 경로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대상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학생의 경우라면 선생님을 통한 관계 구축이, 여학생이라면 친구들로부터의 수평적인 관계 형성이 이들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의 확산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인터넷 요인은 역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이용시간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 시간 자체를 조절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남학생의 경우 단순한 이용시간을 절제하기 보다는 서비스 이용 자체에 대한 몰입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결과만으로 이용시간과 이용도에 대한 객관적 차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분석된 결과는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발달수준별 성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별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집단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로서 집단별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했으므로 앞으로 이런 차이에 기반을 둔 청소년의 발달수준별 성별 집단 차이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청소년의 존재에는 가족과 학교 사회의 전반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제도나 문화 대상으로서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서 학교 내의 한 요인으로서 청소년은 종합적인 시각을 지니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도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학제적인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4년 09월 04일

□ 심사일 : 2004년 09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0월 19일

【참 고 문 헌】

- 강석기(2003) 청소년의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학 연구** 10(3), 155-180.
- 권혜진·윤종희(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4(1), 167-177.
- 김순구·박정순(1990)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14(4), 305-313.
- 김애경(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51-372.
- 김희화·김경연(1998)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2), 47-60.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원(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인터넷 중독의 현상 파악과 관련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8(2), 91-117
- 박성연·이종미·임숙자(2001)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식생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9(8), 1-18.
- 박성익·장정자·신혜숙·신혜정(2000)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연구보고서.
- 박아청·이승국(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교육심리연구**, 13(4), 113-142.
- 배재현·최보가(2001)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과 우정의 질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59-171.
- 이수연·문용우(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권리인식과의 관계 연구. **청소년학 연구**, 9(1), 65-89.
- 이완정(2003)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와 기능 및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49-60.
- 이진화·전경숙(1995) 연령, 성별, 사회계층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6), 225-244.
- 이차선(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승(2000) 새천년의 청소년 정책방향과 청소년의 과제. 한국 청소년학회 학술대회
- 최보가·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3.
- 최정미·김미란 (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한상철(2003) 청소년의 인터넷 접촉 정도와 중독성향에 대한 조사.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9(2), 19-39.
- Barens, L.H. & Olson, D.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lack, A.E. & Pedro-Carrol, J.L. (1993). Rol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in mediating the effects of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1019-1027.
- Edward, W.J. (1996). A measurement of delinquency differences between a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sample: what are the implications? *Adolescence*, 31(124), 973-989.
- Grych, J.H. & Fincham, F.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 cognitive 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Olson, D. H., Larsen, A. S. & McCubbin, H.I. (1982). Family Strengths. In D. H.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S.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Wigfield, A., Eccles, J. S., Iver, D. M., Reuman, D. A. & Midgley, C. (1991). 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Change in children's domain-specific self-esteem across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52-565.